

도란도란 꿈바당

2023년
토끼해가 밝았어요.



토끼처럼 귀여운 우리 친구들, 지혜롭고 총명하게 성장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번 <도란도란 꿈바당>에는 토끼가 주인공인 그림책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책 내용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해보았어요~!!!
친구들은 과연 어떤 책을 재미있게 읽었을까요?
우리 다같이 친구들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봐요~



< 내가 읽은 '토끼' 책 소개해보기 >

제목: 나랑스키 만리 갈래?
 지은이: 클라우디아 루에다
 청구기호: 유아 873 루64나

책을 흔들고, 기를 리고, 뒤집은
 는게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내가 읽은 '토끼' 책 소개해보기 >

제목: 빵이 되고 싶은 토끼 이서영
 지은이: 마루야 마나오
 청구기호: 유아 833 마 24비=C.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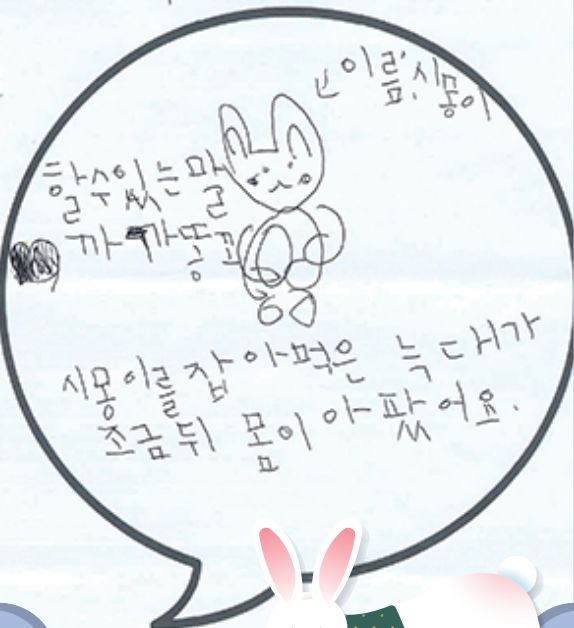
이 책은 뽀빠라는
 토끼가 빵이 되고 싶어서
 빵이 될려고, 시도하는 책입니다.



< 내가 읽은 '토끼' 책 소개해보기 >

제목: 가가 똥고
 지은이: 스테파니 블레이크
 청구기호: 저 800.00 9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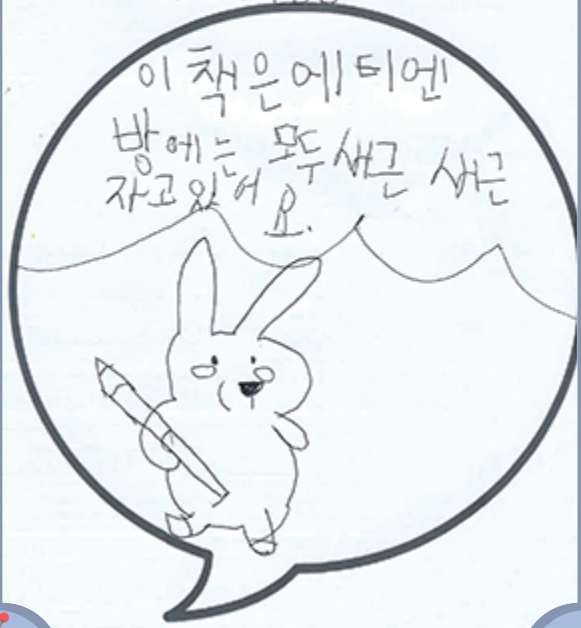
이 책은 시몽이
 똥고하는 마
 가가 똥고
 시몽이 똥고하는 마
 시몽이 똥고하는 마
 시몽이 똥고하는 마



< 내가 읽은 '토끼' 책 소개해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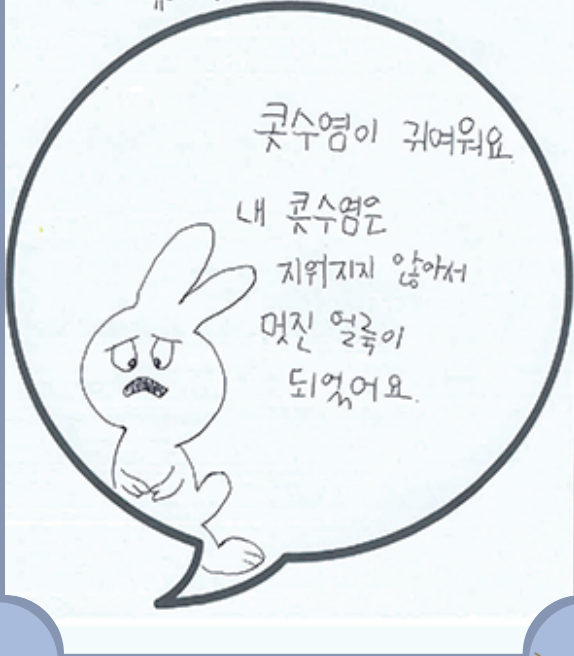
제목: 밤이예요! 고은채
 지은이: 마갈리 보니올 글
 청구기호: 이 정주 울 김

이 책은 에티엔
 밤에는 모든 새근 새근
 자고 있어요.



< 내가 읽은 '토끼' 책 소개해보기 >

제목: ^{코스엄}토끼
 지은이: 전금자
 청구기호: 유아 813 전17



< 내가 읽은 '토끼' 책 소개해보기 >

제목: 짧은 귀 토끼
 지은이: 박원서글·방담그림·이심선삽화김
 청구기호: 823 다66자
 유



< 내가 읽은 '토끼' 책 소개해보기 >

제목: 나랑사과따라갈래?
 지은이: 윤.그림클루디아루에다니움김인유리
 청구기호:



여지가 읽은 재미있는 토끼책



친구들이 고른 책들이에요~



도서관에서 토끼 관련 책들을 전시하고 있어요



귀엽다는 거짓말

전금자



기분이 안 좋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단 어른이니까 참아봅니다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땐 그냥 엉엉 소리내 울어버려요. 울고 또 울다가 조금 진정 되면
찬장을 뒤져 단 걸 찾아먹습니다. 그리고 퉁퉁 부은 눈으로 귀여운 것들을 봅니다.
귀여운 걸 보다 보면 더더귀여운 거, 더더더귀여운 걸 찾게 됩니다.
그러다 마치 콧수염처럼 코 밑에 좌우로 까만 얼룩무늬가 있는 고양이 사진을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 위치에 이런 무늬가 절묘하게 생겼나 싶어서 너무 신기하고 귀여웠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니었는지 이 콧수염 난 고양이 사진은 엄청나게 많은 좋아요 수를 기록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고양이에게 아이디어를 얻어 그림책을 만든 작가도 있지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 고양이는 자신의 얼룩무늬를 사람들이 이렇게나 좋아하는 걸 알까요?
바라보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 짓고, 보정하고, 퍼 나르고, 이야기를 만드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충분히 귀엽고 그래서 다들 자신을 귀여워하는 게 당연할 텐데 말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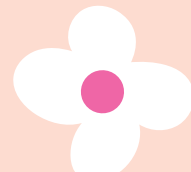
고양이나 사람이나 외모는 중요한 문제인가 봅니다.

어릴 땐 이름이나 외모로 쉽게 별명이 지어 집니다. 귀엽고 예쁜 별명도 있지만 대부분은 웃긴 별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평범하게 지어야 한다는 말도 있지요. (사실 평범한 이름으로도 얼마든지 웃긴 별명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외모 때문에 지어지는 별명은 아주 적나라한 외모 평가의 장이 펼쳐집니다. 당장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어릴 땐 지금 들으면 아찔한 수준의 별명이 한 학급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점이 있으면 점박이, 키가 크면 꺾다리, 머리가 크면 얼큰이...

이런 별명들은 서로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약점이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친구들끼리는 그렇다 쳐도 주변의 어른들이 귀엽다며 한마디 하는 것들이 두고두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버럭 화를 내면 귀여워서 그러는 거라고, 화낼 일도 많다며 오히려 핀잔을 듣기 일쑤였지요.
귀여운데 왜 괴롭히는 거지요? 귀엽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거 아닐까요?



<콧수염 토끼>를 그리면서 마음이 찼했던 장면이 있어요.

깊은 동굴로 들어간 토끼가 코 밑에 난까만 털을 잡아뜯는 장면이에요. 눈물이 찢끔 날 정도로 아프면서도 말이에요.

저도 어릴 때 팔에 털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아빠 면도기로 밀어보기도 하고 족집게로 뽑아보기도 했지만 어느새 소복이 올라온 잔털들을 보며 반소매 대신 긴소매 옷을 걸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매끈하고 하얀 팔이 아닌 것이 너무 부끄럽고 감춰야 할 것 같았어요.

외모에 대한 평가는 보여지는 게 다인 것 같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들을 안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얼굴에 난 점은 보이지만 타인의 말에 예민한 어린이는 안 보이고, 특이한 콧수염 모양 얼룩은 보이지만 상처받은 토끼는 안 보여요. 소복이 난 털은 보이지만 튼튼한 팔은 안 보이고, 장애가 있는 신체는 보이지만 나와 같은 사람임은 안 보이는 것처럼요.



4년 전 더운 여름날은 <콧수염 토끼>를 쓰고 그리면서 저의 어린 시절을 가장 많이 떠올린 해였어요. 토끼의 감정을 전달하려고 제 감정을 자세히 들여다 보았죠.

그때의 저는 듣고 싶었던 말보다 듣기 싫었던 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런 고민을 하니, 어린애가 예민하기도 하지, 나중에 크면 다 괜찮아질 거야 등등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말들이요. 마음이 힘들고 속상한 어린이에게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나중에 다 괜찮아질 거란 말이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나아진다는 말은 진짜 그때가 되어서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어린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같이 맛있는 걸 먹고 귀여운 걸 보세요.

작가소개 | 전금자

글쓴이 전금자 선생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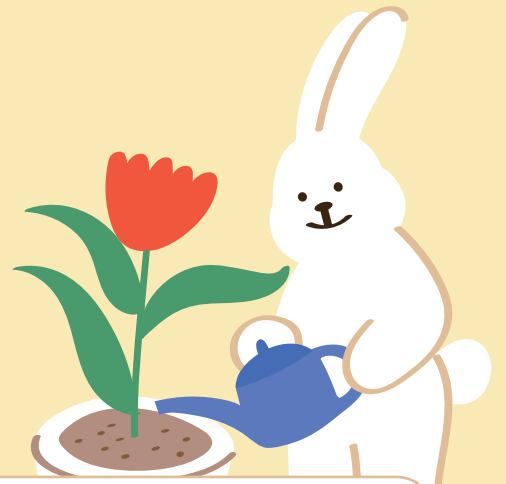
글쓰기와 그림그리기를 좋아해서 그림책 작가가 되었어요.

쓰고 그린 책으로는 <사소한 소원만 들어주는 두꺼비>, <콧수염 토끼>, <우리 집은 언덕 위에 있어>, <뭐, 맛있는 거 없어?>, <준비됐나요?>가 있습니다.



2월

사서 추천도서



저자 나중호 글
출판사 아몬드
발행년도 2022
꿈바당 위치 일반 331.04-
 나75L (꿈자람실)

뉴욕 정신과 의사의 사람 도서관

“공감과 연결의 이야기”

나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덴마크에서 시작된 “사람 도서관”이 그러했듯,

타인을 향한 낙인과 혐오를 줄이고 공감과 이해를 형성하기 위해

그들과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작가는 말합니다.

정신과 의사로써 만났던 그들,

작가 역시 미국에서는 소수 인종으로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그들의 이야기가 그곳에서는 자신이 공감하기 쉬운 상황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다름”을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 책을 읽는 동안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자 김성미 글 그림
출판사 책읽는곰
발행년도 2020
꿈바당 위치 유아 813
 김54o (그림책방)

인사

오늘도 시작된 너와 나의 눈치 게임!

인사를 할까 말까? 지금 할까 말까?

어른이든 아이든 우리 모두에게 아주 공감 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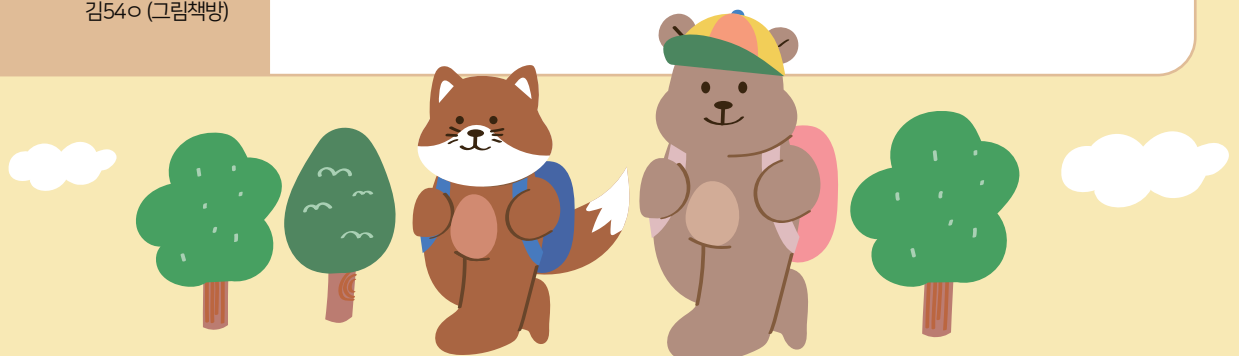
주인공 여우가 늑대 아저씨네 옆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다음날 여우와 늑대 아저씨는 집 앞에서 마주쳤지만 첫인사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인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계속 생겨나고 마음은 계속 무거운 여우와

늑대의 표정에 비슷한 우리들의 기억들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이웃을 마주치고

고민하는 그 순간의 미묘한 마음을 유쾌하게 담은 책이어서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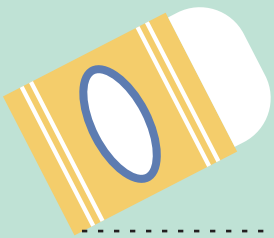
2023 겨울방학 특별 프로그램



연필 드로잉

대상 초등 2~3학년(16명) **기간** 2월 8일~10일(수,목,금), 10:30~12:00

내용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흑백의 연필로 동물 표현해보기



신화오름

대상 초등 4~6학년(20명) **기간** 2월 8일~10일(수,목,금), 13:30~15:00

내용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자신들 신화이자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삼성혈 신화에 대해 탐구해보는 어린이 인문학



토끼야 토끼야

대상 6~7세(15명) **기간** 22월 5일~26일(매주 일) 11:00~11:45

내용 토끼해를 맞아 토끼와 관련된 그림책 읽기 / 게임, 손놀이, 몸놀이 등 즐거운 신체활동하기





꿈바당 독서캠프 1

대상 초등 2~3학년(20명)

기간 2월 7일(화), 10:00~17:00

내용 도서관에서 보내는 하루 캠프 / 신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독서활동 하기 / 마임의 기초를 배우고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 배우기



꿈바당 독서캠프 2

대상 초등 4~5학년(20명)

기간 2월 14일(화), 10:00~17:00

내용 도서관에서 보내는 하루 캠프 / 신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독서활동 하기 / 마임의 기초를 배우고 몸으로 표현하는 방법 배우기



어린이작업실



이번 2월 프로그램 <연필 드로잉> 수업은 황선미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고
흑백의 연필로 그림책의 삽화를 연필로 표현하는 활동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재미나고 창의적인 발상들을 함께 감상해 볼게요!





"일씩아. 너는 훌륭한 어미 닭이야"

"아냐, 그런 말을 듣자는 게 아냐"

"그래도 말하고 싶어. 나는 날지 못하게 된 야생 오리고, 너는 보기 드문 암탉이야"

"그래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된 거야. 우리는 다르게 생겨서 서로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 나는 너를 존경해"

-마당을 나온 암탉 책 속에서...

함께같이 도서관

2023년에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과 연계되어 좋은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고, 독서 문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도내의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동네책방을 [베롱베롱 글바당]에 소개합니다.

올해 첫 웹진의 문을 함께 열어주는 <함께같이도서관>은! 바로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입니다 ^^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아요~ ^^

시가 흐르는 마을에 꿈이 흐르는 곳

작가 고명순

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이 내린 것도 아닌
젖국은 날씨였던 2월 어느날.

애월읍 수산리에 위치한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에 어스름이 내려
앉았다.

켜놓은 불빛 때문이었을까? 도서관 입구가
유난히 화사하게 눈에 들어온다.

‘시가 흐르는 마을’이라는 말랑말랑해지는
문구가 반갑게 마중 나왔다.

그 뒤로 4천 5백여권의 책이 빼곡하게 정돈된
책장이 ‘여기가 도서관’이라고 말해주는 듯하다.



수산리 마을 복지회관 건물 내에 자리한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에서 제4대 박철성 회장과 양우선 총무를 함께 만났다.

시가 흐르는 아름다운 수산리에 언제, 어떤 배경으로 도서관이 태어나게 됐는지가 먼저 궁금해졌다.

2003년부터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해 2016년 9월에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니 그 역사가 벌써 성인을 넘기고 있었다. 그동안 참 많은 꿈들이 이곳에서 영글었겠다 싶다.

현재는 도서관 지도자 10명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수도서관으로 지정될만큼 명실상부한 도서관이 되었단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해내는 것이 작은도서관의 목표라고 했다.

갑자기 오종중 모여앉아 군고구마를 나눠먹으며 옛이야기라도 듣고 싶은 풍경이 사뭇 그리워진다.

물메초등학교 학생들과 가족, 수산리 주민들, 그리고 제주가 좋아, 수산이 좋아 모여든 또 다른 이주민들까지 하나가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도서관 동아리 활동 중 '꿈섬어린이 합창단'은 마을 행사와 제주도내 곳곳에서 다채로운 재능기부와 초청공연 등으로 수산리와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을 깨알 홍보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이 주최한 물메 작가 작품 전시회는 수산리 주민 모두를 참여시키고자 애쓴 만큼 만족도가 높았다. 매해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니 물메 마을 어귀마다 아름다운 작품 물결이 일렁이는 장면을 상상해본다.

문화 사업이 거의 없다보니 문화 활동에 늘 목말라 있는 동네 주민들과 마을 활성화를 위해 문화 활동에 앞장서며 동네 사랑방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가고 싶다는 박철성 회장 외 도서관 지도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감사하다.

9년째 회장직을 수행 중인 박철성 회장은 초기 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공부방을 운영했는데 초코파이만 먹고 가버리더라며 추억을 더듬으며 웃었다.

도서관 행사에 가장 먼저 손 내밀어주고 응원을 보내주는 이는 마을 어르신들이라고 했다.

“도서관이 인기가 참 많아요. ‘도와 줄거 어시냐? 잘햐져, 잘햐져. 무사 행사 안 햐시냐?’ 물으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신단다.

진심어린 칭찬과 응원은 감동으로 다가오게 마련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아이들이 움직이고 그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명나는 어르신들이다. 그 중심에 수산리새마을 도서관이 한 몫 단단히 해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다.

인근에 위치한 '그리고 서점'과 문화 사랑방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는 답변과 함께 주 이용층인 물메초등학교 졸업생들에게 <그리고서점 이용권>을 장학금으로 전달한다는 의미있고 아름다운 소식에는 지금도 마음 한켠이 따뜻함으로 뭉클하다.

앞으로 도서관의 발전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고 아쉬운 부분이 예산 문제인데 어떤 방법으로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작은도서관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 체계가 없다는 것이 작은도서관을 아끼는 한 사람으로써 아쉽다고 지적했다. 작은도서관 지도 제작 등 작은도서관을 알리고 활성화 시키는 방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비록 미력하지만 수산리새마을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찬 의지를 보였다.



두런두런 도서관 이야기 꽃을 피우는 동안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에 시처럼 밤이 찾아왔다. 짧은 2월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이 곳이 다시 아이들의 행복한 웅성거림으로 가득하겠다. 시가 흐르고, 노래가 흐르고, 사람 냄새가 흐르고, 그 사람의 꿈이 흐르는 아름다운 수산리새마을작은도서관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즐거로운 도시관생활

꿈바당의 겨울

올해는 유독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이었습니다. 새하얗고 반짝이는 꿈바당의 겨울왕국을 소개합니다.



작은 새 친구 손님들도 슬그머니
왔다 갔나 보네요^^



처마 밑에는 예쁜 얼음눈꽃도
피었답니다!



새하얗서 더 예뻐던 꿈바당에서의
겨울나기로 2023년을 시작해봅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꿈바당 가족들

겨울방학을 맞아 많은 친구들이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을 찾아왔어요~
모두모두 환영하고 반가워요!! 새해에도 꿈바당을 많이 사랑해주세요♥



꿈바당 독서캠프

2023년 첫 시즌프로그램으로 '꿈바당 독서캠프'가 1차(2/7), 2차(2/14)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해준 친구들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었지요?

올해 도서관 주제인 '신화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는 시간~ '마음'을 배우며 몸의 감각을 일깨우는 시간~~

맛있는 점심과 간식을 먹으며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2023년도 책과 이야기를 사랑하며 몸과 마음이 쑥쑥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을 기대해 볼게요~~



2023년은 토끼의 해! 토끼 그림책을 전시해요

2023년은 계묘년, 육십간지의 40번째로 계(系)는 흑색, 묘(卯)는 토끼를 의미하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토끼의 해를 맞아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올해 첫 전시를 토끼와 관련된 그림책 전시로 마련해보았어요.

꿈자람책방, 2층복도, 그림책방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



새해를 맞이한 꿈바당

새해를 맞이하며 도서관 직원들이
이용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새 마음가짐으로 도서관 정원과 주차장을
깨끗하게 쓸고, 나뭇가지들을 정리했어요.



또 올 한해를 잘 운영해 나가기 위해 도서관 관계자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올해도 여러분들께 좋은 프로그램과 도서관 운영으로
따뜻한 공간,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견학 안내

학부모 동아리에서 진행하는 그림책 읽기 활동은 2023년
3월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매주 월·수 오전시간에 방문하는 견학 어린이들은 이야기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재미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소규모 단체, 어린이집 견학 등 도서관을 방문하는 친구들~
많이 신청해주세요 ^^



2023년 도서관 주제는
'신과 함께'(신화)입니다.

2월 전시 주제는 '우리 신화 어디까지 아니?',
3월 전시 주제는 '영등할망과 제주바당'입니다^^

